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년~2000년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Patter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1996-2000

이 치 주(Chi-ju Lee)*

초 록

본 논문은 기존의 학회지 중심의 연구와는 다른 현장중심의 학술지를 통하여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영역과 주제의존도 및 핵심저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실무에 있어서의 주된 연구분야는 문헌정보학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학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endency to mainly concentrate on the study of research activitie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paper places the focus on grasping research patterns presented in the journal papers which reflect library practices. Actually, this paper analyzes research areas, the degree of relative dependence by subjects, and leading journals found in the papers which have been reported in the three main library journals such as "Tosogwan",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and "KLA Bulletin : Tosogwanmunwha," from 1996 to 2000. As a result, the study says that major research areas in library practices show the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hile the degree of dependence on the information science is low.

키워드: 연구동향, 인용분석, 핵심저널, research activit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eading journals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lcj@nl.go.kr)

- 논문 접수일 : 2002. 8. 20
- 게재 확정일 : 2002. 9. 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헌정보학은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최근에 발표된 정보학분야가 결합된 학문으로 관찰 가능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형성된 학제적 성격을 지닌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정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학은 “정보의 일반적 성질과 행동, 정보가 유통하는데 작용되는 힘,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고 Taylor는 정보학을 정의하고 있다.

hojt(1969)는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주제영역을 문헌정보학, 정보학, 전산학, 데이터처리, 정보학이나 전산학에서의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학제적 학문인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그 분야의 학술지를 통해 다양한 계량서지학적 접근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기존 국내외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회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된 반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의 ‘도서관’,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 도서관협회의 ‘도서관문화’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되어 수록된 문헌을 대상으로 접근하였다. 이들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관련 국내외 논문과 연구사례를 소개하는 순수 학술지로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다루어 학회지와 그의 성격을 차별화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장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지를 통해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용분석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구조적인 성격을 시대별 추이와 함께 계량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문헌정보학 관련주제분야에서의 연구주제의 시대적 변화와 경향 및 학제적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의 현장중심의 문헌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및 그 변화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 도서관협회의 ‘도서관문화’를 선정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문헌정보학분야의 논문의 주제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사용하였던 Jaervelin과 Vakkari(1990)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정보학분야의 ISA를 참고로 하여 10개의 대주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1개의 소주제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인용문헌의 분석을 통해 인용문헌의 주제의존도 및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핵심잡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전체 인용문헌의 주제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제분류는 서명을 기준으로 정진식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을 비롯해서 이론개발과 연구방법 등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국내의 경우를 보면 한상완, 조인숙(1996)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문헌정보학분야의 4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자, 논문주제, 참고문헌 이용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 문헌정보학분야의 주제분포에서는 대학도서관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학분야의 주제분포에서는 정보검색과 KORMARC가 주를 이루었고, 서지분야의 주제분포에서는 고활자와 판본학을 포함한 고서지 분야가 가장 강조되었다. 또한 언어별 분포에서는 영어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서은경(1997)은 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의 정보관리학회지와 미국의 JASIS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정보학분야의 연구영역과 정보학 연구의 타학문 주제 의존

도, 학제적 구조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자동문헌 분석과 정보검색 그리고 응용분야가 정보학자들의 주요 연구관심사임을 밝힌바 있다.

조찬식(1999)은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에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연구의 양과 정보조직 및 검색분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서베이연구가 자주 이용된 점과 통계기법을 이용한 계량정보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진식(2001)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고 학문의 연구영역과 타학문과의 주제 의존도 및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변화를 조사하였다. 인용패턴을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이용, 연구의 동향과 변화를 대응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조사결과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정보학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학문의 이론 및 응용기법의 활용도가 높은 컴퓨터 관련 전산학이 부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외의 경우 Feehan(1987)은 정보학분야를 일반적 연구, 전문적 연구, 이론적 연구, 응용적 연구, 기타 연구를 토대로 JASIS의 1990에서 1993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영역을 조사하였다.

Bracken(1989)은 문헌정보학분야의 13

〈표 1〉 Jaervelin과 Vakkari의 분류기준

주제번호	주 제 영 역	주제번호	주 제 영 역
01	전문직	51	목 록
02	도서관사	52	분류 및 색인
03	출판(도서관사 포함)	53	정보검색
10	문헌정보학 교육	54	서지 및 서지데이터베이스
20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55	기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30	문헌정보학 분석	60	정보추구행위
40	도서관,정보 봉사활동	61	정보배포
41	대출 및 도서관 상호대차	62	정보원 및 정보경로의 이용 및 이용자
42	장서관련 연구	63	도서관 및 정보봉사 이용연구
43	정보/참고봉사	64	정보추구(탐색) 행위
44	이용자 교육	65	정보의 이용
45	도서관 건물 및 장비	66	정보관리
46	행정 및 계획	70	과학적,전문적 커뮤니케이션
47	자동화	71	과학 및 전문적 출판
48	기타 봉사 및 활동	72	인용형태 및 구조
49	상호 관련된 활동	80	문헌정보학의 기타 측면
50	정보축적 및 검색	90	기타 연구영역

개 학술지에 게재된 인용문헌을 분석하고 교육학, 심리학, 영문학이 인접분야의 학문임을 제시하였다.

Jaervelin과 Vakkari(1990)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논문에 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주제의 분류기준을 정보이론, 문헌정보학 교육 등 12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II. 자료의 주제별 분석

오랜 역사를 지닌 문헌정보학은 그 내용상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영역과 체계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논술하기

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정보학 실무관련 학술지인 “도서관”, “도서관문화”, “국회도서관보”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실린 논문 총 319편의 주제를 Jaervelin과 Vakkari(1990)의 분류기준 다음의 <표 1>을 참조 사용하였으며 정보학분야의 ISA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를 참고로 해서 10개의 대주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1개의 소주제로 세분화하는 정진식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2>는 주제 분류기준에 의한 주제영역분포도이며, <표 3>은 논문 주제

〈표 2〉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영역분포도 (%)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주 제 명						
자료조직	8(10.6)	1 (1.4)	10(17.5)	3 (5.4)	6 (9.5)	28 (8.7)
도서관경영	10(13.3)	17(24.6)	10(17.5)	9(16.3)	14(22.2)	60(18.8)
참고정보서비스	4 (5.3)	2 (2.9)	2 (3.5)	3 (5.4)	7(11.1)	18 (5.6)
문헌정보학일반	26(34.6)	26(34.7)	17(29.8)	17(31.0)	15(23.8)	101(31.6)
연구방법론	4 (5.3)	1 (1.7)				5 (1.5)
정보생성	1 (1.3)	2 (2.9)		1 (1.8)	6 (9.5)	10 (3.0)
정보인식	4 (5.3)	1 (1.4)	1 (1.7)			6 (1.8)
정보처리	5 (6.6)	4 (5.7)	8(14.0)	10(18.2)	7(11.1)	34(10.6)
정보시스템	11(14.7)	13(18.8)	8(14.0)	8(14.5)	5 (7.9)	45(14.1)
서지학/서지학일반	2 (2.6)	2 (2.9)	1 (1.7)	4 (7.3)	3 (4.7)	12(3.7)
계	2,071	2,066	2,055	2,054	2,063	10,309

세분 분포표이다. 〈표 2〉과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영역이 31.6%로 가장 활발했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경영 18.8%, 정보시스템 14.1%, 정보처리 10.6%로 나타나고 있다. 정준식(2000)의 연구와 비교해본다면 정보처리 영역 30.7%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 현장에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와 전자도서관 분야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주제분야에서는 관중별 도서관 운영이 16.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연구방법론, 정보학영역의 정보인식 주제에 대해서는 낮은 분포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도 서은경의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 영역이 정보처리 분야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주요 영역은 검색 및 색인에 대한 이론적이며 기술적인 논문보다는

시스템 응용 및 그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정진식의 연구(2001)에서는 문헌정보학자들의 주요연구 영역은 정보처리 영역이 30.7%로 가장 활발했으며, 그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일반 12.8%, 정보학분야의 참고정보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이 각각 11.4%, 도서관경영(관리) 11.3%순으로 나타나 정보학분야의 정보처리영역이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영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보생성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출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미미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교해본다면 현장 실무에서의 주된 연구 주제분야는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정보처리와는 달리 문헌정보학 관련분야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차이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문헌정보학분야와 정보학분야로 구분하여 년도별로 기술해보면 문헌정보학 측면

〈표 3〉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세분 분포도 (%)

주제분야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자료조직	분류		5(6.6)		8(14.0)	2(3.6)	2(3.2)	17(5.3)
	편목		2(2.6)	1(1.4)	1(1.7)		1(1.6)	5(1.5)
	MARC포맷		1(1.3)		1(1.7)	1(1.8)	3(4.8)	6(1.8)
도서관경영	장서개발				4(7.0)		3(4.8)	7(2.2)
	관중별도서관운영		10(13.3)	17(24.6)	6(1.0)	9(16.4)	11(17.5)	53(16.6)
	대출관리							0
참고정보서비스	도서관서비스		2(2.6)	1(1.4)	1(1.7)	2(3.6)	2(3.2)	8(2.5)
	참고정보서비스			1(1.4)	1(1.7)	1(1.8)	2(3.2)	5(1.5)
	전자정보서비스		1(1.3)				1(1.6)	2(0.6)
	서비스평가측정		1(1.3)				2(3.2)	3(1.0)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원		5(6.6)	3(4.3)	5(8.7)	3(5.5)		16(5.0)
	전문직		6(8.0)	10(14.5)		4(7.3)	2(3.2)	22(6.9)
	정보사회면		8(10.6)	6(8.7)	4(7.0)	8(14.5)	10(15.9)	36(11.3)
	법적인면(저작권)		7(9.3)	3(4.3)	1(1.7)	1(1.8)	2(3.2)	14(4.4)
	교육관련			4(5.8)	7(12.3)	1(1.8)	1(1.6)	13(4.1)
연구방법론	계량서지학							0
	이용자연구		3(4.0)					3(1.0)
	사회학적연구		1(1.3)		1(1.7)			2(0.6)
정보생성	출판유통		1(1.3)	1(1.4)			3(4.8)	5(1.5)
	커뮤니케이션							0
	전자출판			1(1.4)		1(1.8)	3(4.8)	5(1.5)
정보인식	언어학							0
	인공지능		1(1.3)					1(0.3)
	인용분석		3(4.0)		1(1.7)			4(1.2)
	색인초록			1(1.4)				1(0.3)
	문자패턴인식							0
정보처리	파일설계		2(2.6)	1(1.4)	3(5.3)			6(1.8)
	정보검색		1(1.3)	1(1.4)	1(1.7)		2(3.2)	5(1.5)
	온라인탐색				1(1.7)			1(0.3)
	OPAC			1(1.4)		1(1.8)	1(1.6)	3(1.0)
	WEB자원			1(1.4)				1(0.3)
	인터넷		2(2.6)		1(1.7)	6(11.0)	2(3.2)	11(3.5)
	인터페이스						1(1.6)	1(0.3)
	추적							0
	검색시스템평가측정				2(3.5)	3(5.5)	1(1.6)	6(1.8)

〈표 3〉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세분 분포도 (%) - 계속

주제분야		연 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상호협력)	4(5.3)	3 (4.3)	1(1.7)		1(1.6)	9(2.8)
	데이터베이스	2(2.6)	1 (1.4)			3(4.8)	6(1.8)
	색인초록서비스	1(1.3)				1(1.6)	2(0.6)
	시스템응용	2(2.6)	1 (1.4)	1(1.7)	4(7.3)		8(2.5)
	전자도서관	2(2.6)	8(11.5)	6(1.0)	4(7.3)		20(6.3)
서지학/서지학일반		2(2.6)	2 (2.8)	1(1.7)	4(7.3)	3(4.8)	12(3.8)
합 계		75	69	57	55	63	319

에서는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도서관 자동화와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인공지능 관련연구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색인 및 검색기법과 시스템구축에 관련된 연구들이,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보검색 및 시스템평가측정과 OPAC 등의 정보처리영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인용분석과 이용자연구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세기후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보서비스와 웹, 전자출판, 저작권,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분야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영역 이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Ⅲ. 인용문헌 분석

전체 인용문헌의 분석을 통해 인용문헌

의 주제의존도 및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형태별, 언어별, 주제별분석과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핵심잡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인용문헌의 주제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용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주제분류는 서명을 토대로 정진식의 분류기준으로 분류하였다.

1. 형태별 분석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록된 학술지에 인용된 문헌의 년도별 형태 분포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다. 단행본이 전체의 38.6 %로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정간물 31.4%, 웹 11.8%, 학회지 5.2%, 학위논문 4.9%, 신문 1.8%, CD-ROM도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웹 자원의 인용율이 99년보다 낮은 하지만 오히려 학회지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어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표 4〉 인용문헌의 연도별/형태별 분포(%)

연도 형태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단행본	347(45.9)	399(46.1)	427(41.9)	202(28.3)	388(34.8)	1,723(38.6)
정간물	254(33.6)	302(34.9)	249(24.4)	224(31.4)	373(33.5)	1,402(31.4)
학위논문	34 (4.5)	18 (2.1)	58 (5.7)	35 (4.9)	77 (6.9)	222(4.9)
학회지	45 (6.0)	29 (3.3)	48 (4.7)	69 (9.7)	45 (4.0)	236(5.2)
웹(web)	6 (0.8)	51 (5.9)	140(13.7)	163(22.9)	168(15.1)	528(11.8)
CD-ROM	1 (0.1)	18 (2.0)	0 (0.0)	1 (0.1)	5 (0.4)	25 (0.5)
보고서	13 (1.7)	0 (0.0)	10 (1.0)	1 (0.1)	11 (1.0)	35 (0.8)
기념논집	12 (1.6)	5 (0.6)	5 (0.5)	7 (1.0)	12 (1.0)	41 (0.9)
신문	13 (1.7)	14 (1.6)	21 (2.0)	6 (0.8)	29 (2.6)	83 (1.8)
기타	31 (4.1)	29 (3.3)	61 (6.0)	5 (0.7)	6 (0.5)	132(2.9)
계	756	865	1,019	713	1,114	4,467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정진식의 연구와 비교를 해보면, 형태별분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정간물, 단행본인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학회지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언어별 분석

연구대상인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에 게재된 총319편의 논문에서

인용한 4,467 개의 인용문헌을 연도별, 언어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영어권 문헌은 꾸준한 이용율을 보이다 2000년도에는 1999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문헌도 1996년 이후 강세를 보이다 1999년에 감소하다 2000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어문헌이 영어권문헌에 비해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 또한 정진식 연구에서의 영어권 문헌이 68.0% 인용된 현상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인용문헌의 연도별/언어별 추이 (%)

연도 언어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한국어	384(50.1)	460(53.2)	515(50.5)	324(45.4)	569(51.1)	2,252(50.4)
영어	323(43.3)	348(40.2)	441(43.3)	374(52.4)	479(43)	1,965(44)
일본어	34 (4.5)	34 (3.9)	62 (6.1)	15 (2.1)	37(3.3)	182(4.1)
중국어	9 (1.2)	13 (1.5)			15(1.4)	37(0.8)
독일어	6 (0.8)				14(1.3)	20(0.4)
기 타		10 (1.1)	1 (0.1)			11(0.2)
계	756(16.9)	865(19.4)	1,019(22.8)	713(15.9)	1,114(24.9)	4,467

〈표 6〉 학술지에 인용된 인용문헌의 주제영역별 분포도 (%)

연도 주제명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문헌정보학	446(59)	394(45.5)	553(54.3)	310(43.5)	603(54.1)	2,306(51.6)
정보학	134(17.7)	127(14.7)	195(19.1)	243(34.1)	119(10.6)	818(18.3)
전산학	7(0.9)	15(1.7)	10(1.0)	24(3.4)	11(1.0)	67(1.5)
커뮤니케이션	5(0.7)	39(4.5)	23(2.3)	18(2.5)	20(2.0)	105(2.3)
서지학	10(1.3)	18(2.0)	10(1.0)	28(3.9)	40(4.0)	106(2.3)
경영/경제	22(2.9)	40(4.6)	14(1.3)	33(4.6)	66(5.9)	175(9.9)
일반과학	9(1.1)	1(0.1)	6(0.6)	2(0.2)	3(0.3)	21(0.5)
사회학	7(0.9)	50(5.8)	49(0.5)	14(1.9)	101(10.0)	221(4.9)
교육학	11(1.4)	55(6.3)	25(2.4)	13(1.8)	11(1.0)	115(2.6)
심리학			8(0.8)			8(0.2)
공학			1(0.1)			1(0.02)
통계학			2(0.2)	1(0.1)		3(0.06)
의학						0
언어학	1(0.1)	2(0.2)	1(0.1)		4(0.4)	8(0.2)
행정학	3(0.4)	1(0.1)	11(1.0)	1(0.1)	1(0.1)	17(0.38)
음악						0
통신정책						0
보건학			4(0.4)			4(0.09)
기 타	101(13.3)	123(14.2)	107(10.5)	26(3.6)	135(12.1)	492(11.0)
합 계	2,651	2,739	2,910	2,686	2,979	13,965

3. 주제별 분석

인용문헌을 통하여 관련된 타학문의 주제 의존도를 분석함으로써 학문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으며, 학문간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제 의존도는 다음 <표 6>에서와 같이 문헌정보학 5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함께 정보학 18.3%의 이용율을 보였다. 경영학 9.9%, 사회학 4.9%, 교육학 2.6%이며, 서지학, 커뮤니케이션도 각 2.3%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학문은 아주 낮은 이용율을 나타냈다. 또한 의학, 음악, 통신정책 분야는 인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으로 한 학술지의 특성으로 인해 결과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진식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문헌정보학의 의존도에서는 44.4%로서 많은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정보학에서는 40.0%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년도별에서는 1996년에는 문헌정보학 59%, 정보학 17.7%, 경영학 2.9%, 교육학 1.4%순이며, 1997년에는 문헌정보학 45.5%, 정보학 14.7%, 교육학 6.3%, 사회학 5.8%, 경영학 4.6%, 커뮤니케이션 4.5%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에는 문헌정보학 54.3%, 정보학 19.1%, 사회학, 교육학이 꾸준히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문헌정보학 43.5, 정보학 34.1% 사회학 10.0%, 경영학 5.9%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에는

문헌정보학 54.1%, 정보학 18.3%, 사회학 4.9%, 경영학 9.9%로 나타나고 있다. 인용문헌의 주제영역별 분포도에서 특징은 정보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전산학 분야도 매우 미미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현장의 가장 큰 관심분야는 여전히 문헌정보학 분야이면서 정보학분야는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나 큰 폭의 이용율을 보이지 않고 있다.

4. 핵심저널

<표 7>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용된 학술잡지의 빈도수를 보면 “도서관”에서는 1996년에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97년에는 도서관문화, 1998년에는 서평문화, 1999년에는 도협월보, 도서관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잡지의 경우는 1996년에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997년에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1998년에 Library Journal, 1999년에 JASIS, 2000년에 Libri로 나타났다.

“도서관문화”는 <표 9>과 <표 10>에서와 같이 1996년에 도서관, 1997년에 계간 저작권, 1998년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99년에 도서관문화, 2000년에 도서관학이며 국외잡지는 1996년에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997년에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1998년에 Information Online & On disc, 1999년에 JASIS,

2000년에 Library Trends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보”는 <표 11>과 <표 12>와 같이 1996년에 계간 저작권, 1997년에 도서관문화, 1998년, 1999년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0년에는 한국정보관리학회지가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잡지의 경우는 1996년에 Online, 1997년에 JASIS, 1998년에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1999년에 Library Journal, 2000년에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가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 “도서관”, “도서관보”, “도서관문화”

에 인용된 학술지들을 보면 특정된 학술지에 편중하지 않고 국내의 다양한 유관기관의 학술지를 인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인용된 국내 학술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점차 학회지의 인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술활동을 전개로 하는 특징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인용된 저널은 국내 잡지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국외잡지로는 JASIS로 나타났다.

<표 7> “도서관”에 의하여 인용된 국내잡지의 빈도 순위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잡 지 명	빈도	잡 지 명	빈도	잡 지 명	빈도	잡 지 명	빈도	잡 지 명	빈도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	도서관문화	11	서평문화	13	도협월보	9	도서관학	13
2	도서관학논집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7	도협월보	9	도서관문화	7	도협월보	10
3	도서관문화	3	도서관	6	도서관	8	도서관학논집	6	국회도서관보	10
4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	도서관학논집	5	정보관리연구	8	도서관	4	도서관	8
5	국회도서관보	3	도서관학	3	국회도서관보	6	한국정보관리학회지	4	도서관학논집	6
6	도서관학	3	비블리오월리	2	도서관문화	5	정보관리연구	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
7	정보관리연구	2	국회도서관보	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서지학연구	4
8	도협월보	2	한국비블리아	2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	국회도서관보	2	한국비블리아	3
9	도서관	2	도협월보	2	도서관학논집	2	녹색평론	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
10	서지학연구	1	한국정보관리학회지	1	도서관학	2			국립대학 도서관보	3

〈표 8〉 “도서관”에 의하여 인용된 국외잡지의 빈도순위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1	J. of Lib. Ad.	5	Sc. Lib. Media Quarterly	10	Library Journal	4	JASIS	11	Libri.	4
2	Library Trends	4	CRL	5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6	CRL	4
3	JASIS	3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	American Libraries	3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	Library Acquisition : practice and theory	3
4	LRTS	3	Electronic Library	2	Library Acquisition : practice and theory	3	Library Quarterly	3	Library Journal	2
5	CCQ	3	American Libraries	2	CRL	3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3	RQ (Reference Quarterly)	2
6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3	JASIS	2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2	Online	3	American Libraries	1
7	Communication of the ACM	2	IEEE Computer Graphics & Applications	2	Library Trends	2	Collection Management	2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1

〈표 9〉 “도서관문화”에 의하여 인용된 국내잡지의 빈도 순위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1	도서관	3	계간 저작권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7	도서관문화	3	도서관학	4
2	디지털도서관	2	도서관	3	도서관학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3	국회도서관보	2	국회도서관보	2	도서관	3	도서관학	3	도서관	1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도서관문화	2	도서관학논집	2	도서관	2	도협월보	1
5	도서관학논집	2	정보산업	1	계간 저작권	2	고서연구	2	도서관학논집	1
6	도서관문화	2	도서관학논집	1	국립대학 도서관보	1	도서관학논집	1		
7	도서관학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	국회도서관보	1				
8	도서관보	1	한국비블리아	1	도서관문화	1				
9	도협월보	1			정보통신연구	1				
10	정보산업	1			정보과학회지	1				

〈표 10〉 “도서관문화”에 의하여 인용된 국외잡지의 빈도 순위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1	LRTS	3	CRL	10	Information Online & On Disc	1	JASIS	1	Library Trends	18
2	Library Journal	1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	Retgers Computer & Tec. Law	1	Libri.	1	Library Journal	11
3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2	Computer in Libraries	1	Lib. and I nfo. Science Research	1	Library Quarterly	5
4	Library Quarterly	1	EIPR	2	CRL	1			Wilson Library Bulletin	3
5	Advance in Librarianship	1	RL (Reference Librarian)	2	EIPR	1			Program	2
6	JLIS	1	Information Online & On Disc	1	Advance in Librarianship	1			CRL	1
7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	Communication of the ACM	1	Library Trends	1			LRTS	1

〈표 11〉 “국회도서관보”에 의하여 인용된 국내잡지의 빈도 순위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1	계간 저작권	11	도서관문화	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5	한국정보관리학회지	7
2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	국회도서관보	4	도서관문화	4	도서관학논집	1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
3	도서관	2	디지털도서관	4	한국정보관리학회지	4	도서관학	4	도서관학논집	3
4	서울국제법 연구	1	도서관학논집	3	도서관	3	한국정보관리학회지	4	도서관운동	3
5	국회도서관보	1	데이터베이스 월드	2	국회도서관보	3	도서관문화	3	과학과 사상	2
6	정보산업	1	한국디지털포럼	2	도서관학논집	3	국회도서관보	3	국회도서관보	2
7	도서관학논집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디지털도서관	3	도서관	2	도서관문화	2
8	도협월보	1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	현대미술관 연구	2	정보관리연구	2	기록보존	2
9	정보화사회	1	도서관운동	1	도협월보	1	정보화저널	1	도서관	2
10			국립대학 도서관보	1	국립대학 도서관보	1	정보화사회	1	도서관학	1

〈표 12〉 “국회도서관보”에 의하여 인용된 국외잡지의 빈도 순위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잡지명	빈도
1	Online	5	JASIS	6	CRL	7	Library Journal	7	LRTS	5
2	Management Science	5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	JASIS	5	LRTS	4	CCQ	4
3	Database	4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	RQ	5	JASIS	3	American Libraries	4
4	Communication of the ACM	4	Library Quarterly	2	Library Trends	4	Database	3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
5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	D-Lib Magazine	4	CRL	3	Library Trends	3
6	RQ	3	Traning and Development Journal	1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3	Program	3	Library Journal	3
7	JASIS	2	American Libraries	1	Library Hi Tech.	3	RL	2	CRL	3

IV 결 론

지금까지 현장중심의 학술지 즉,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문화”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회지 중심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한국문헌을 영어권문헌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현장에서는 단행자료, 그리고 정기간행물 선호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웹 자원의 인용빈도 또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연구주제분야는 문헌정보학 영역

이 31.6%로 가장 활발했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경영 18.8%, 정보시스템 14.1%, 정보처리 10.6%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 현장에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와 전자도서관 분야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부주제분야에서는 관중별 도서관운영이 16.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연구방법론, 정보학영역의 정보인식 주제에 대해서는 낮은 분포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에서의 관심을 갖는 주요 핵심주제영역은 문헌정보학분야 영역, 도서관경영의 관중별 도서관 경영분야로서 가장 큰 관심영역이며, 그 다음으로 정보학분야에서 전자도서관이 주된 연구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인용문헌의 주제영역별 분포도에 서 특징은 문헌정보학 분야에 비해 정보학분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산학 분야 또한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분야들인 사회학, 교육학, 경영학은 매년 비슷한 추세로 인용되고 있다. 즉, 도서관현장의 가장 큰 관심분야는 여전히 문헌정보학 분야면서 정보학과 전산학 관련 분야는 문헌정보학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잡지들이 인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잡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JASIS로 분석되었다.

문헌정보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많고 다양하다. 좀더 많은 연구논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문헌정보학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이룰 수 있게 되며,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닌 현장 실무와 학문적인 이론이 같이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헌정보학 연구는 시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배순자. 2001.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124-140.
-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269-291.
- 유재욱. 1993.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 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0(2): 145-167.
- 이춘실. 2000. 서지정보를 이용한 한국 의학 학술지 평가. 『정보관리학회지』, 17(1): 49-65.
- 신동민. 1996.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수집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1): 84-96.
-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1-65.
- 한상완, 조인숙. 1996.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51(1): 114- 139.
- Atkins, S.E. 198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1984." *Library Trends*, 36(1): 633-658.
- Borko, H. 1968. "Information science." *American Documentation*, 13(1): 3-5.
- Feehan, P.E. et al. 1987. "Library and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2): 173-185.
- Hoyt, R.H. 1969. "A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American Documentation*, 20(3): 358-361.
- Jaervelin, K. & P.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Pettigrew, K.E & McKechnie L. 2001. "The Use of Theory in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2(1): 62-73.
- Taylor, R.S. 1966.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RIST*, vol.1.
- White, H.D. & Griffith, B.C. 1981. "Author Cocit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32(3): 163-171.